

冠岳語文研究 第1輯

M. 푸철로의 「露韓辭典」에 대하여

崔 鶴 根

1976. 10

M. 푸철로의 「露韓辭典」에 대하여

崔鶴根*

1.

1. 이 著書를 解題하는 가장 좋은 方法은 原著者의 序文을 紹介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우선, 그 全文을 翻譯한다.

『去 1873年 遠僻地 시베리야(Сибирь)는 그 歷史에 特記할만한 事件을 記入했다. 아렉씨이 아렉산드로비치(Алекс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大公爵殿下가 그의 侍從武官長 포시에트(К.Н. Посьет)를 同伴하고, 우라지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에 上陸하여 그다음에 우수리地方과 아무르地方(Уссурий и Амур Краи) 全體를 旅行했다. 그 途中에 그 地方의 民生問題 모든面에 關해서 大公殿下는 稀貴한 入念과 知慧로운 關心을 表示했다.

그때에 南部우수리地方(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에 居留하는 적지 않는 數의 韓國人們(Корейцы)이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勤勉과 良好한 生活로 依해서 識別되는 이들 移住民들은 大公에게 特히 좋은 印象을 주게 되었다.

大公은 그들의 生活狀態와 窮乏에 對해서 同情을 가지고 質問했으며, 韓國人們의 宣敎事業을 為해서 金錢上의 寄附를 했고, 이 宣敎事業의活動은 이미 반가운 成果를 가져왔던 것이다.

現在, 포시에트灣(Залива Посьет)近傍, 風光明美한 地域인 韓國人村 페레세예크(Перешеек)에 小禮拜堂이 建築되고 있으며, 이는 아렉씨이聖

* 서울大國語國文科 教授(國語學專攻)

堂이라는 이름으로 大公의 南部우수리地方 訪問의 記憶을 永久히 保存하기 為해서 그 獻堂式을 期待하고 있다. 이 地方을 為한 韓國移民들의 利點과 또한 아직도 當分間은 閉鎖되어 있을 韓國人們과 우리와의 將來 할 關係의 重要性에 對한 公平한 關心에서 殿下는 그 好意있는 關心을 또한 나의 韓國語研究에도 들리셨으며, 그리하여 오직 殿下의 協助의 德分으로 二年前에 이미 完了한 辭典의 出版에 對한 必要한 費用을 나로 하여금 受得 可能케 했던 것이다.

沿海州(Приморском Области)行政廳에 屬하여 特殊한 委任을 맡은 한 官吏로서 南部우수리地方에 駐在하면서, 나에게는 露國領地方內에 韓國移民들의 定着地를 建設하고 全般的인 配慮를 할 任務가 賦課되어 있었다.

이 事業에 있어서의 成功은 移住民들과의 面談에 不可缺한 韓國語의 知識에 많이 左右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本人은 自身이 處한 여러 惡條件下에서도 可能한 範圍內에서 韓國語의 研究에着手했었다.

여기에서 韓國人們로 하여금 우리 領土內에 移住해 오게 한 諸原因과 動機에 關해서若干 言及해 두는 것이 適切한 일일 것이다.

大體的으로 貧困하고 收穫없는 韓國의 北部二道의 住民들은 屢次의 爬作과 거의 慣例적인 餓餉에 시달렸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賦力에 맞지 않는 穀物로 課하는 過大한 稅賦와 또한 그들이 當한 官吏側으로 부터의 可恐한 壓制가 加重된다면 이 두 道의 가장 貧困한 住民들이 祖國을 버리고隣接한 露國領土로 移住할 決心을 하게 된 理由가 完全히 分明한 일일 것이다.

1863年 國境地方의 露國領土內에 移住한 最初의 出國者인 十二家族은 좋은 地域을 占有했고, 그들의 勤勉性과 精力, 그리고 露國政府側의 若干의 物質的 助力의 德分으로, 早速한 時日內에 그들의 祖國에 남은 多大數의 同胞들과는 比할 수 없이 낳은 그들의 運命을 開拓하는데 이

르렀다.

이 實例는 故國에 있는 사람들에게 影響을 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移民은 더욱 큰 規模를 가지기 始作했다.

1865年에는 韓國人은 이미 222名(兩性 共허)을 헤아렸고, 그다음 1870年에는 그들은 이미 個別의으로가 아니라, 한번에 數個家族이 隊列을 지어서 不絕히 移住하게 되었는데, 이는 드디어는 그와 같은 無人化에 對해서 無關心한 態度를 取할 수 없었던 그들의 政府側으로부터의 迫害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韓國政府當局은 移住를 妨害하기 始作했고, 逃亡者の 財產을 没收하고, 全體의으로 移住를 中止시키기 爲해서 모든 手段을 行使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不拘하고 移民은 繼續했으며 露國領土內에로의 出國者는 大量으로 增加했으며, 그들의 同胞인 最初의 移住者들을 壓迫해서 遠方의 僮地로 逐出했다.

이렇게 해서 南部우수리 一部地方에로의 韓國人們의 移住가 漸次로 遂行했었던 것이다.

힐벗고 굶주리고 가장 가련한 外見으로 무리를 지어서 우리 國境에 나타나서 그들은 緊急한 物質的 救助를 必要로 했으나, 우리側으로서는 이 移住群象에게 그들이 必要로 하는 援助를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는 地方駐屯軍을 爲해서 歐羅巴에서 海路로 搬入했었던 食糧保有가 甚히 限定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困難에도 不拘하고, 韓國移民은 그들의 故國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안했을뿐만이 아니라, 露國領土內에 그들自身을 急速히 固着시키는데 努力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再次 그들에게 닥쳐올 그들이 憎惡하는 韓國政府의 壓制와 復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러나 이와 同時에 卓越한 우리 文化와 宗教를 認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韓國移民의 大多數가 直時 露西亞化의 志向을 示現하게 된 것은 이때 문이고, 그들은 自發的으로 正教教會의 儀式에 따라 洗禮를 받았고 露西亞的 風習과 生活의 模倣에 努力했다. 勿論 이 模倣은 初期에는 單只外面的이고 形式的인 露西亞生活에 局限되었는데(그 衣服, 그 住宅建設方法等等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初期에 있어서만 많았던 일이었다.

韓國人們은 脆弱하고 屈從的으로 中國帝國에 隸屬해 있다는 點에서 中國人們과 同一族에 所屬해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天性과 發展에 對한 感受性은 보다 더 日本人과 哈似하다는 것을 認定해야 될 것이다.

韓國人移民에 關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不遠한 將來에 우리들을 爲해서 그들이 疑心 없이 가져올 수 있는 經濟的인 利益에 關해서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도 荒蕪地인 우리의 南部우수리地方에 移住해 온 것과 더우기 우리 政府를 爲해서는 아무 負擔없는 移民이며, 또한 이 地方에서의 農業과 商業의 發展에서 그 利益을 發見할 수 있다.

韓國人은 中國의 그것에 依據해서 高度로 改良된 體系의 農業을 하고 있다. 그러나 農業에 關해서는 露西亞殖民者들의 敵手가 못되는데, 이는 後者가 大耕作地 農業에 習熟하기 때문이며, 그들 自身을 爲해서는 平野를 選擇하는데, 韓國人們은 이른 바 “溫帶, 따스한 곳”, 換言하면 山으로 둘러 싸인 狹谷을 좋아한다.

現在의 韓國人们的 移住狀態에 關해서 우리는 빼양코프司祭(Священник Пьянков)의 “南部우수리地方에 關한 若干의 統計資料”(Несколько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Банных обь Южно-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라는 論文에서 發見할 수 있다.

引用한 數字는 대단히 興味로운 것인데, 韓國人 植民의 成果의 證據로서 이의 括記를 나는 充分히 適切한 것으로 看做한다.

南部우수리地方에 全韓國人은 以下의 地域의 管區에 分布된 十三個村에 男女合 3,473名을 해아린다. (其中 2,054名이 洗禮를 받았다.)

1. 수이훈 管區(Суйфунский Округ) 얀치하·치엔-해·페레세예크·시지미·찌무해村

2. 한카이 管區(Ханкайский Округ) 시벨니코바·크로후노프카·푸젤토프카·카르사코프카·자케비체바·후루겔모프카

3. 수찬 管區(Сучанский Округ) 뼈얀코바·바실리에프카

이들 村內의 移民들은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家屋 및 小舍——711,

家口(平均 7人)——496,

男 1850,

女 1623,

이) 韓國移民의 進陟은 主로 故 東部시베리야總督(Генералъ-Губернатор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미하이르, 세묘노비치, 카르사코프(Михаил, Семенович Карсаков)가 設定한 土臺에 依存했으며, 그는 地方發展을 為한 뜨거운 同情과 또한 初期 韓國移住民들의 福祉를 為한 物質的, 道德의 인 援助로서 助成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提出된 資料는 全然 未知의 言語研究에 그 基礎를 設定하는 最初의 試圖이다. 따라서 讀者は 이 著作속에서 誤記와 語彙의 不足과一般的인 不完全을 發見할 것이나, 이에 對해서 寛容 있으시기를 바란다.

一般的으로 어떠한 資料이든 蒐集하는데 대단한 困難을 經驗했다. 그럴것이 以前에 出版된 勳作은 거의 利用할 수 없었으며, 土着人們의 言語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利用해서 作成했고, 더우기 그들 中에 或者는 無識했었으며, 或者는 有識하기는 했으나 變則의이었고, 또한 不明한 發音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同時에 中國語의 確固한 知識이 있는 韓國語로 編入되어서 變化

해비린 中國語彙를 區分할 수 없었던 것이다.

確實히 이의 出版 또한 많은 技術的인 困難과 連結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活版印刷와 石版印刷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모든 韓國語 原文은 나의 自筆이다.

한 때 어찌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唯一한 著書는 英國宣教師 메드허스트(Medhurst, Medhurst)가 出版한 “中, 韓, 日本語彙의 比較研究” (Сравнительный Китайско-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й Словарь: A Comparative Vocabulary of Chinese, Corean and Japanese Language)이다. 이는 한 韓國商人이 日本人들과 韓國人과의 貿易交涉을 為한 參考書로서 編纂했다. 이 韓國人은 基本語彙로서는 日本人들과 韓國人們이 共通的으로 採擇使用된 漢字語를 擇했다.

메드허스트는 그의 中國語知識을 利用해서 漢字의 뜻을 英語로 翻譯하고, 그리고 日本語彙와 韓國語彙를 英文字로 써서 記錄했다.

그는 漢字를 英語로 翻譯할 때에 過誤를 저질렀는데, 그 理由는 한 文字가 다른 文字와 아무 關聯없이 써있을 때에는 間或, 어느 程度 完全하게 差異 있는 概念들을 表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韓國語의 音을 英文字로 表記하는데 있어서 그는 不得히 그 語彙發音을 歪曲했는데, 例를 들자면 到處에서 (y)字記號를 메드허스트는 (y)처럼 發音하는 英文字(oo)를 表記했다.

이 資料를 編纂하는데 있어, 나는 메드허스트의 著書를 利用했는데, 그것은 韓國人們이 中國語를 읽을 때에는 이의 意義를 나에게 韓國語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해서였다. 그와 同時に當時 우수리地方에 滞在하면서 나의 事業에 活潑한 參與를 應해 준 팔라디이管長(Палладий)에 依해서 文字檢查를 받았다. 나는 이 機會를 利用해서 나에게 示與한 助力에 對해서 誠意 있는 感謝를 表示하고, 또한 同時に 나의 韓國語研究에 있어 나의 友人이며 助力者였던 韓國人 니코라이, 미하이로비치, 姜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Лянъ〔樂〕)을 感謝와 더불어서 回想한다.

韓國語의 字母는 全然 어렵지 않고, 若干은 日本語와 相似性을 지니고 있다. 이 相似性은 中國語에서와 같이 各文字가 完全한 概念을 表示하지 않고, 다만 한個의 音節을 表示하며, 몇個의 音節이 合해서 完全한 語彙를 形成하는 點이다.

그 主要한 字母는 九字이고 이들에서 부터 餘他의 182字를 形成한다. 이 字母中에서 多數의 字母는 한 語彙의 語頭에 있는가 또는 語中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주 完全히 差異있는 各種의 音들을 表現한다.

例하면, 語中에 있어서의 ta, тѣ, ты等은 Да, Дѣ, Ды等으로 發音되고, 同様으로 Ka는 Ga로, Pa는 ба로, La는 Ra로, Ca는 За로 變化한다.

萬若 語中에 清音 La, Ka, Ca, Pa가 나온다면, 그때에는 9個 基本字의 하나인 그에 該當되고 強化된 字母를 添加하면, 그것은 그 音을 強化하는 結果가 된다.

辭典의 使用者は 最初에 반드시, 볼 수 있는 限 露文字音으로 表記된 韓國語原文을 添加한 韶은 文字說明에 注意를 向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母音 아래의 (一)表示는 兩文字가 個別音을 區分하지 않고, 함께 發音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表示한다.

例하면, ㅂ니는 長音 ㅂ처럼, 또는 거의 ㅂ&처럼, ㅕ는 ㅕ처럼, ㅑ는 ㅑ처럼, ㅚ는 獨逸語 Ӧ처럼 發音된다.

yo, ya는 佛語의 “Voie”와 같고 ae는 a와 e 사이의 한가운데 音을 發音하기 為해서와 같이 함께 發音하지 않으면 안된다.

母音 o 上部의 (一)는 長母音 o를 表示하고 (o), 그리고 e 위에 二點을 가진 (ㅡ)는 e가 長母音 ㅓ처럼 發音되는 것을 表示한다. (ㅓ); (ㅡ) 아래의 H字는 佛語鼻音 ㅇ처럼 發音한다.

이들 符號以外에 Ц*, П*, К*, Т*等 音節上部에 位置하는 x小字는 이 音節들이 氣音과 同伴해서 發音되는 것을 表示하기 為함이나, 그리

나 x首은 充分히 發音되지 않는다.

實際는, 問或, 子音들 위에 ㄾ, ㄭ, ㄻ字가 位置하는 것은 實在의 發音을 表示하기 為함이다.

例하면, “Цхонцан-и”; ㄽ字上에 表示된 3字는 ㄽ가 淸音이 아니고 3字 (ㄭ3)와 같이 發音되는 것을 表示하기 為함이다. 이와 같은 記號들은 韓國語語彙를 初心者가 正確히 發音하는 것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充分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이 著作을 世間에 發行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의 極히 즐거운 義務의 遂行이 남는다. 나는 나의 著作에 關連해서 侍從武官長 포시에트氏에게 그가 表示한 热烈한 加擔에 對해서 나는 나의 誠意있고 深甚한 謝意를 表示할 義務가 있다. 그 이름이 이미 우리 祖國에 있어서의 수많은 좋은 新事業들과 關聯되어 있는 포시에트氏는 그自身的 助力과 모든 나의 申請과 要請에 對한 好意的配慮로 이 著書의 刊行이 實質적으로 促進되었다는 것을 나는 言明하는 바이다.¹¹⁾

M. 푸질로

聖彼得부르크. 5月 16日, 1874年

2. 이 辭典의 體裁는 四六版($12.5\text{cm} \times 17\text{cm}$)으로 序文 15頁, 本辭典部 730頁, 總基本語彙數 約 7,300語程度이고(1頁平均 10語), 「露韓辭典」(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가 表示하는 바와 같이 露語를 알파벳順으로 羅列한 主題語에 對해서一一이 韓國語를 對置시켰는데, 韓國語는 名詞의 境遇에는 一語乃至 五六語, 用言의 境遇에는 二三種의 語尾活用을 試圖해시 보이고 있다. (例) 놋두, 놋두, 원두, 원두(117)(緣豆),

1) 이 著書의 發行年度로 判斷되는 바와 같이 本 「露韓辭典」은 帝政露西亞時代의 著作이고, 또한 그 線字法改定以前의 著述이기 때문에, 이 頁은 序文의 譯譯에 있어서도 蕪玩教授(韓國外國語大學 露語科)의 그 發音과 譯譯에 對한 修正의一部分이 肯定的으로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것을 表示하고, 同教授에 對한 謝意를 表明한다.

눕소, 늠는다, 누웠소(279)(臥);

著者에 의하면 여기에 記錄된 모든 韓國語는 著者の 自筆이라고 되어 있는데²⁾ 그렇게 서투른 글씨라고는 볼 수 없으나, 誤記라고 생각되는 곳이 相當數 눈에 띄여서 눈에 거슬리는 點이 없지도 않지만, 「全然 未知의 言語에 關한 最初의 試圖」³⁾ 치고는 誠實한 記錄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對해서 著者도 「讀者는 이 著作 속에서 誤記와 語彙의 不足과 一般的인 不完全性을 發見할 것이다」라고 認定하고 있다.⁴⁾

따라서 著者は 著書題目에 있어서도 “опытъ”(試圖, 試作)란 말을 使用하고 있다.

이 著者は 그저 「韓國語」(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라고만 記錄하고 있으나, 辭典에 收錄된 語彙全體가 一見해서, 서울을 中心한 中央語와는相當한 差異가 있는 어느 地方의 方言의 特色이 強力하게 支配하고 있어, 잠깐 보아서는 理解하기 困難한 點이 하나 둘이 아니다.

(例) 알남구기 Кохинхина (趙南國)

알, 야리 Десять (十)

안이, 아니 Внутрь (内, 内部)

고마기 Будорь (小丘, 小岡)

나리 Основа (經)

회색 Озеро (湖水)

이는 著者が 그 序文⁵⁾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北部二道의 住民들」(咸鏡道, 平安道)의 言語(方言)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露國의 南우수리地方은 豆滿江 河口전너면 露領이기 때문에 地理的으로 咸北地方과隣接해 있고, 따라서 그 移住民의 大部分이 咸鏡道地方

2) 序 : P. 10.

3) 序 : P. 10.

4) 序 : P. 10.

5) 序 : P. 3.

人이었다고 推測할 수 있으며, 다음의 語彙, 音韻, 語法等의 分析은 이 것을 確信시키기 주고 있으나, 또 同時に 平安道方言의 混記도 뚜렷한 것을 否定할 수 없으며, 若干의 中央地方의 方言도 發見되는 것을 肯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을 否定할 수 없다. 어쨌든 이는 距今 100年前의 記錄이기 때문에 國語方言研究로나, 韓國語歷史的研究에 貢獻할 수 있는 하나의 文獻으로 利用될 수 있을 것 같다.

2.

이제 이 辭典의 内容이 어떤 것인가, 또는 그 方言的特色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為해서 (1) 音韻 (2) 語法 (3) 語彙等의 順으로 다음과 같이 分類해 보았다.

(1) 音韻

(1) 中間子音

中間子音『日, 人, 月』가一般的으로 維持되어 있는 것이 그 重要的特色의 하나이다. 그러나 또한相當數의 語彙에서 그 脱落形도 記錄되어 있는 것이 눈에 뜨인다.

(a) 中間 -b- -β- 音

17, ⁶⁾ 벼버리¹¹⁾ / 병어리⁷⁾ [pobori/popori]⁸⁾ (啞者)⁹⁾ ——慶尙南北道,

全羅南北道, 濟州島, 咸鏡南北道, 各全地方, 忠清南北道一部,

江原道一部地方¹⁰⁾ ——

6) 初頭의 Arabia數字는 辭典部의 頁數.

7) 本文의 韓國語記錄(무절로氏自身의 記錄에 依함)

8) 무절로氏에 依해서 記錄된 露文字發音記號를 萬國發音記號로 고친것 []안.

9) 露語題語에 對한 韓國語(標準語), 또는 이에 對한 漢文翻譯語()안.

10) 本文의 韓國語記錄이 方言形으로 現方言에 分布된 地域 —— ——안. 그러나 各地의 Variants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中間 -b- 音을 維持하는 것은同一함을 말한다.

11) P. 101에는 「(보)비버리」로 再出.

37. 끗부부리／꼿부두¹²⁾ [kotpuburi/kotpudwi] (꼿-부리 : 蕃) ——
咸鏡南北道 ——
45. 하부라비／호라비 : 하부러미／흘엄이／과부 [haburabi/ horabi;
haburəmi/horəmi/kwabwi] (흘-아비, 緣夫 : 흘-어미, 算婦)
—— 慶尙南北道, 咸鏡南北道, 全北一部, 江原一部 ——
67. 달비¹³⁾／달위 [tarbwi/tarwi] (다리 : 髻) —— 慶南北, 咸南北 各
全地方, 全南北, 忠南, 江原各一部地方¹⁴⁾ ——
113. 쓱싸／쓱소 [?'sup-ta/'sup-so] (쓰다 : 苦) —— 慶南北各一部, 咸
南北各一部, 江原, 全北各一部地方 ——
191. 자분다／자부오／조오룬다¹⁵⁾ [tsabun-da/tsabu-o/tsoorun-da]
(졸다 : 睡) —— 慶南北, 咸南北 各全地方, 全南, 江原各一部地
方 ——
293. 아복이¹⁶⁾ [abogi] (아복 : 英) —— 慶南北, 咸南北 各全地方, 全南
北 各一部地方 ——
385. 말방이 [malbapi] (마름¹⁷⁾ : 莓) —— 慶南北, 咸南北, 全南北 各全
地方, 忠南一部地方¹⁸⁾ ——
351. 밍소／밉다／미벼라¹⁹⁾／원방이 [mip-so/mip-ta/mibora/wonmagi]
(밉다, 미워서 憎) —— 慶南北, 咸南北 各全地方, 江原一部地

12) 「꼿부두」는 「꼿부두」의 誤記인듯.

13) P. 257에 「달비／달위」로, P. 445에 「달비／달비」로 重疊記錄되어 있다.

14) 이 大部分의 地方에서는 「달비」[talbi]로 發音된다.

15) P. 153에 「자분다／자부오／조으룬다」로 再錄됨.

16) P. 375에 「아보기」로 再錄. 露語로 「野菜의 種類」로 說明되어 있다.

17) 露語로 「물 胡桃」로 說明되어 있으나, 「마름 : 莓」임에는 틀림없다.

18) 이들 各地에 中間 -b- 音 雜持形으로 多樣的인 Variants가 分布되어 있는데,
[말베이], [말방새], [말방수], [말방], [말방새이], [말방수], [말방소],
[물밤], [물밤], [물밤]等이다.

19) 이와 같이 動詞 形容詞의 活用에 있어서 中間 -b- 音이 雜持되어 있는 다른
例로는 P. 467의 「깁소／기벼라」(補釋), P. 637의 「어드벗소／어드벗다」
(憎), P. 687의 「예벳소／여뵈엇소」(야웠다)等이 있다.

方——

519. 느베 곳이²⁰⁾ [nusbekot'i], (누에-고치) : 蔭) —— 慶南北 各一部, 咸南北 各一部地方——
537. 골방이²¹⁾ [kolbapi], (우렁이) : 田螺) —— 慶北一部, 江原一部, 咸南北 各一部地方——
555. 눈두베／눈두에 [nuntupe/nuntue], (눈두덩 : 瞰) —— 咸南北 全地方, 慶北一部, 江原一部, 全南一部地方——
623. 호바기／방의호바기 [hobagi/paguiihobagi], (화 : 曰) —— 慶南北, 咸南北 全部地方, 江原一部地方——
713. 가비²²⁾／고의 [kabwi²³⁾/kowi] (고의 : 褐衣)

以上의 17, 「버버리／벙어리」; 45, 「하부라비／호라비, 하부러미／흘업이」; 67, 「달비／달위」; 191, 「자분다／조오른다」; 555, 「눈두베／눈두에」; 713, 「가비／고의」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中間 -b- 舊의 維持形과 그 脫落形이 함께 記錄되어 있으나, 이 外에도相當히 많은 量의 脫落形이 記錄되어 있다.

125. 「입여기／입슈어리」²⁴⁾(입술 : 脣)

279. 「눕소／눕는다／누웠소²⁵⁾ 「눕다, 누워 : 臥」

20) P. 701에 [느베](누에)로 再錄.

21) P. 667에 [골방이／골방조끼／골방벌기]로 再錄되어 있으나, 露膈로는 “Улитка”(달팡이)로 說明되어 있다. 그리고 이 P. 537의 [골방이]는 “Раковина спиральная”(螺貝)로 記錄되어 있다.

22) [符曰珂背] —— 瑶林類事

23) kabwi形은 現方言에 存在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咸鏡道方言에, 特히 咸北方言에 있는지는 不明.

24) ip-subul(慶北, 江原 各一部), ip-suburi(慶北, 慶南 各一部), ip-subəri(慶南北各一部), ip-sabul(慶北, 忠北 各一部), ip-səberi(慶南北各一部), ip-sibul(慶北一部), ip-soburi(慶南一部), ip-səbel(忠北一部). 그러나 咸鏡道는 im-njək(咸南北 各一部).

25) nubu:n-da, nubəsə (慶南北 各全地方, 江原一部地方).

331. 기우러지오／기우러진다²⁶⁾ (기울다：傾)
 461. 돋소／도아라²⁷⁾ (돕다. 도와；助)
 483. 취석이／가외²⁸⁾ (가위：秋夕，嘉俳)
 573. 가온디／가온듸²⁹⁾ (가운데：中)
 573. 맷느위／느위／기차느위／동성느위³⁰⁾ (누이：妹)
 727. 아가외³¹⁾ (아가위：山查子)

또 中間 -b-音이 膺輕音化해서 脱落한 直後의 것이라고 보이는, 따
라서相當히 古形이라고 보이는 語形이 記錄되어 있음을 볼 수도 있다.
即,

55. 수우리³²⁾ (술：酒)
 129, 두올³³⁾ (둘：二)
 또 이 外에도
 265. 두옹그려흐다³⁴⁾ (둥글다：圓)
 (b) 中間 -s-音
 257. 구시／쇼구시 [kusi/sjo-kusi] (구유：飼槽)——全南北, 慶南北,
咸南北, 濟州 各全地方, 忠南北 各一部, 江原一部地方——
 361. 가서 (kase) (가위：鉄)——全南北, 慶南北, 忠南北, 咸南北,

-
- 26) ³tʃiburədʒi-da, ³tʃiburn-da (慶南北 各全地方, 全南 一部地方);
[月斜 得二吉卜格大]——朝鮮館譯語。
 27) top-³ta, tobasa, (慶南北 全部地方, 江原一部地方)
 28) [嘉俳——八月望日] 三國史記(儒理王九年條)
 29) kabunt'e, kabunde (慶北一部地方); [江心——把刺要噴得]——朝鮮館譯語
 30) nubi(慶南一部地方), nubu(慶南北 各一部地方), nube(咸北一部), n̩ibi(咸
南一部地方); [妹——餃必]——朝鮮館譯語
 31) agwbe(全南 全地方, 全北一部, 忠北一部地方), agube(慶南北 各一部地方,
忠南北 各一部地方), agobe(忠南一部地方),; [아가외 당(棠)]——訓蒙字會上
P. 11; [海棠實曰悅口]——北塞記略
 32) [樓우희서수을먹고] (樓頭喫酒)——杜詩八 28.; P. 333 [잔우리／잔수우리／
작취]로 再錄。
 33) [두올재] (二)——七大萬法 2.; 二曰 途李——鷄林頌事
 34) [둥글다] (圓)를 [두옹글다]로 記錄된 古文獻은 發見되지 않는다.

濟州 各全地方, 江原一部, 京畿一部地方——

425. 부숙기／부어기, [pusukke/puci] (부엌 : 廚)——慶南北, 全南北

各全部地方, 忠南北一部, 咸南北 各一部地方——

459. 기스무민다／기스무미오³⁵⁾ [kisumu-meo/kisumu-men-da] (김

매다 : 除草)——慶南北, 全南北 各全部地方, 忠南北 各一部, 咸

南北 各一部地方——

443. 여서본다／여본다 [joso-pon-da/jo-pon-da], (엿본다, 여어본다)

——慶南北, 全南北 各全地方, 忠南北, 咸南北 各一部地方——

이의 脫落形이라고 밟아지는 記錄은

509. 니어, (잇다, 이어 : 連續)

527. 진는다／지어라／짓소, (짓다, 지어 : 作, 製造)

그러나

581. 「니어라／닌는다／닛서라／니스」는 前記 509. 「니어」와 同一語
가 아닌듯 해서 露語로는 「組立한다. 製作한다」로 說明되어 있고,

401. 「그신다／그이오／그시오」

는 露語로는 「否定한다, 取消한다」로 說明되어 있다.

(c) 中間 -g- 音

55. 포도／멸귀 [p'odo/molgui] (여루 : 山葡萄)——全南北, 慶南北,

咸南北 各全地方, 江原一部, 平南北 各一部, 黃海一部地方³⁶⁾——

441. 술괴³⁷⁾ [sulgwi] (수레 : 車)——咸南北³⁸⁾——

35) P. 523에 「기삿소／기삿다／것츠오」도 그 뜻은 다르지만 同種의 語彙이다.

36) 以上 各地에 分布된 Variants들은 各己 그 麗形이 다르나, 中間 -g- 音 維持
形이라는 點은 共通되기 때문에 한데 記錄했고, 이런 것은 此前이나 此後에
도 同一하다.

37) P. 243. 「박휘／술괴박휘」參照.

38) 小倉進平著 [朝鮮方言の 研究] 前篇 P. 264 [sulggi] 參照.

243. 놀기³⁹⁾ 놀가지 [nolgi/nolgadzi⁴⁰⁾] (노루 : 犬)——咸南北 全地方,
平北一部, 江原一部, 黃海一部地方——
423. 몰기／모래 [molge/more] (모래 : 砂)——慶南北, 咸南北 各全地
方, 平北一部, 江原一部, 黃海各一部地方——
667. 굴게／구레 [kulge/kure] (굴레 : 脊, 勒)——咸南北 全地方, 平
北一部地方——
441. 둘군다⁴¹⁾ [tulgund-a] (두룬다 : 圍)
419. 심거살군다／기성호오 [simgø salgun-də/kesəŋ-hao] (심어 살린
다)——慶南北, 咸南北 全地方——

윗 419의 「심거살군다」는 露語로는 「移植한다」로 되어 있고, 또 本文
의 「기성호오」는 「改生하오」로 믿어지기 때문에 標準語의 「심어서 살린
다」와 同一語이고, 「둘군다」와 「살군다」의 「구」는 使役의 「구」이고, 現
在 慶尚南北道의 方言에 많이 使用되고 있다.

또 이 中間 -g- 音과 關聯해서 命令形語尾 「-어라」가 「-거라」로 많
이 使用되는 것이 눈에 띠는데, 379의 「둘거라／두루오」(圍); 515의 「지
른다／질거라／지르오」(刺); 517의 「걸거라／거르오」(濾過); 519의 「나
르오／닐거라」(謂) 等에서 볼 수 있다.

39) 이 「놀기」의 「-기」는 咸南北方言에 흔히 使用되는 -gi接尾辭로 보인다. 따
라서 「노루+기」>노루기>놀기」의 形成이라고 믿어지고, 다음의 「놀가지」
도 「놀기+아지」>놀가지」의 形成임이 틀림이 없으나. 이 -gi接尾辭가 붙는
方言形의 代表로서 여기에 記入한다.

이 -gi接尾辭가 붙는 語彙는 本辭典에 이 外에도 P. 157의 「구동이／궁기」
(孔穴)와 P. 425의 「궁기」(구멍 : 穴), P. 283의 「여기／여호」(여우 : 獵),
P. 65의 「머릿기」(毛髮), P. 323 P. 625의 「잘기」(棗), P. 251의 「열기」
(麻), P. 699 「복서기」(梭), P. 679의 「횡낭기」(行廊)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0) 푸젤로氏는 終聲에 使用하는 「-ㄹ」 即 “-l”을 露文字 “r”로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morgwi/surgwi/ norgi/norgaji” 等으로 記錄했으나, “molgwi/
sulgwi/nolgi/nolgadzi” 等으로 筆者表記方法으로若干 變更했다. 此後에도
이런 境遇는 同一함.

41) P. 369의 「둘거린다／둘거티오」 및 P. 379의 「둘거라／두룬다」參照.

(ㄴ) 「ㄱ, ㅋ, ㄷ, ㅌ」音 等이 「ㅣ」母音위에서 口蓋音化되는 傾向이
稀貴하다.

a) ㄷ, ㅌ 音

- 13. 당피(長鼓); 15, 칸되／난되⁴²⁾ (鸞鳥);
- 21, 405. 냉조(亭子); 21, 치오／터라／틴다(打);
- 25. 터여비／터법이(大皿); 695. 법시／법시(皿);
- 31. 형매(兄弟); 33. 터디오／터여라(投);
- 77, 229. 디되／디도(地圖); 117, 성동사라미(城中人);
- 119. 황예(皇帝); 121. 지경이／디경이(地境);
- 129, 디혜(智慧); 131. 도정이(朝廷);
- 141. 어디오／착호오; 149. 딘동흐다(珍重);
- 153. 티오／싸리오(摶打); 161. 더구리(啄木鳥);
- 169. 딘쥬(眞珠); 181. 글례(文題); 197. 면쥐(田主); 편년이／평디
(平地);
- 197. 디동이／싸우례(地動); 201, 던진(前兆);
- 201. 디혜(智慧); 203. 디위(地位); 209, 325. 예기(제기); 215. 황
예(皇帝); 221. 고손돗티／잇돗티; 225. 둥복이(仲伏);
- 235. 등국이／등워니(中國); 245. 감당감퇴(검정감투);
- 249. 렁이／텅집이(廳); 267. 단디(壇);
- 269. 당식／당식(商人); 283. 렘장이／놋장이／덤쥐(鑄工);
- 311. 어디오(賚); 남령이(男丁);
- 327. 텁텨비／(疊疊); 331. 디른다／지르오(刺);
- 337. 곡되／곡묘(曲調); 345 텁성이(天性);
- 397. 치오／디오／딘다(鑄造); 403. 엇디(何);
- 403. 칙히／딕힌다＼딕히오(守); 409. 바지／바디(下衣);

42) 露語로는 [神話的 鳥類]로 說明되어 있다.

467. 도리를한다／되리호오(調理, 健康回復);
 687, 437. 쪽소／듯소(好); 473. 정한다(定);
 497. 되쉬／됴수(潮水); 599. 딥피(짚);
 679. 자더／자두(紫色); 457. 전당이／전장이(戰場);

以上은 대충 간추려 본 것이나, 그 中에서 口蓋音化된 것과 兩形으로
 記錄된 것은 21. 치오／텨라／틴다(打); 121. 지경이／디경이(地境);
 183. 봇티오／봇친치(封減한다); 331. 디룬다／치르오(刺); 397. 지오
 ／딘다(鑄造); 403. 칙히／틱힌다／틱히오(守); 409. 바지／바니(下衣);
 457. 전당이／전장이(戰場); 687. 쪽소／듯소(好)等 不過 몇個語彙가
 되지 않는다.

b) ㄱ. ㅋ音

323. 계(겨 : 槟); 615. 기동이(柱); 331. 기우러진다(傾); 263. 기
 슬기(지봉);
 231. 깃츠미(咳); 447. 겨드랑이／겨덕이／자키미(脇);
 557. 겟티／겟티(榜); 287. 키／치(舵); 501. 짐춰／짐치(김치);
 519. 질스미(질심); 507. 삼킨다／삼치오(삼키다);

(ㄷ) 語頭에서 「ㄱ, ㄷ, ㅂ, ㅅ」等音의 濁音化傾向이 顯著하지
 않다.

9. 쌈자(茄子); 85. 씩기오／씩긴다(彫刻);
 89. 나무까지(枝); 259. 셀파씨(實果種);
 335. 쑤기(洑 : 賀金); 쌈미／고미(履, 馬賀借);
 391. 쓸기잇소／슬기잇소(智慧); 333. 찬쑤리(酒); 417. 썩는다／겨
 소(折);
 335. 녹소／녹는다／싸라지오／쓰라진다(融, 消);
 411, 457. 둘이／들이／두루이(들, 野);

그리나,

117. 콧시분동이(花盆);

403. 고지진다/썩려지오(落花);

以上으로서 그例가充分하지 못하나, 大體的으로 ㄱ, ㄷ, ㅂ, ㅅ, ㅈ
音等이語頭에서 그다지濁音化가發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己) 齒音「ㅅ, ㅈ, ㅊ, ㅌ」가 「ㅡ」母音위에서先行하는境遇, 그「ㅡ」
母音은 「ㅣ」母音화하는倾向이 있는一連의語彙들이 있는데, 이들語
彙들에 있어서도 아직「ㅡ」母音을維持하고 있는倾向이強하게보인
다.

111. 징이／증(징 : 鑄); 141, 581. 멧촛나리(며칠 날);

197. 것츠오／기삿소(거칠다); 231. 깃츠미(기침 : 咳);

261. 일죽(일찍 : 早); 277. 주는다／줏소(짓다 : 為);

351. 술소／술다(싫다); 367. 거줏／거줏게(거짓 : 謊);

491. 승겁소(싱겁다); 495. 어즈러온(어지럽다 : 混亂);

569. 즉금(지금 : 至今); 583. 쯤성이(짐승 : 獸);

669. 승피웃소(실글웃는다); 187. 즐인님자／즈린너(치린내);

(口) 「ㅣ」母音이나 「ㅓ」母音이先行하는重母音 위에서 「ㄴ」音이 그
대로發音되는것처럼記錄되어 있다.

131. 냥바니(兩班)⁴³⁾; 72. 니⁴⁴⁾(이 : 豆); 127. 벳허⁴⁵⁾(昔年);

153. 녀식이⁴⁶⁾(女息); 57. 넛소／녀어라(挿入); 77. 니허나오(立,
起);

43) P. 549에도 [낭바니]로再出하나, 이 [낭바니]는露貨의 “Рубль”에對한 말
이니 [兩牛]으로解釋된다.

44) P. 47에도 [니]가나오고, P. 83에도 [니]가나오는데, P. 47의 [니]는露
里 “Верета”的 [里]이고, P. 83의 [니]는 [齒]이다.

45) P. 153에 [净资产]으로再出.

46) P. 157에 [식시／간나의／녀시기]로再出.

171. 널네(烈女); 177. 니쳤소/니는다(忘);
 209. 녀염이/녀래미⁴⁷⁾(閨閻); 223. 녀색(曆書);
 233. 녀네⁴⁸⁾(鱸魚); 275. 낭이/낭/한낭이⁴⁹⁾(兩);
 281. 연보지/연화(蓮花); 283. 닙피/나무닙피(葉);
 283. 니비(額); 329. 님는다/니벼라/닙소⁵⁰⁾(服);
 355. 나오/닌다/매라(머리에 이다: 戴); 415. 고기/녕이(嶺);
 421. 닙춘이(立春); 455. 닙չ리/님쌀/빙미/빅미(白米);

(2) 語法

(ㄱ) 名詞가 子音으로 끝나는 境遇, 그 名詞 뒤에 「이」添加.

5. 부워리(斧鐵); 7. 약방이(藥房);
 9. 죄이니(罪人); 11. 죽슈니(竹筍);
 17. 저우리(저울: 鉤); 21. 구수리(구슬: 珠);
 27. 콩이(콩: 大豆); 27. 모시(못: 池);
 29. 병이(病); 31. 통이(桶);
 35. 방우리(방울: 鈴); 39. 병이(瓶);
 49. 노리/늘이(餚); 69. 웃티기시(깃: 楊);
 149. 셔답도리(셔답돌: 洗濯石);
 227. 져리/결이/찰이/결이(寺); 117. 사라미(人);
 373. 푸슈기/풍쇼기(風俗); 457. 둘이/들이/두루이(들);
 489. 허물이(허물); 501. 종이(종: 奴僕);
 509. 설이(姓); 511. 상인이(常人);

47) 露語로는 [農家] “Изба”, 또는 [平民家] “Домъ простолюдина”로 記錄되어 있다.

48) P. 571에 [녀네/녀네]로 再出.

49) 露語 “ланы”(라나)로 記錄되어 있고, 그 註에 “Одна лана=2 рубля” (1라나=2루블)로 記錄되어 있다.

50) P. 377에 [니벼라/님는다/닙소], 또 [니부리/금침이]로 再出.

589. 쇼경이／당인이(소경：盲人)等；

그러나 名詞末音이 「ㅇ」 [-o]인 境遇에는 때로는 그 「ㅇ」 [-o]音을 脱落시키고, 「-이」를 添加시킨다.

549. 한나이(一兩); 439. 마다이(場) 等。

(ㄴ) 「ㅣ」母音이나, 「ㅣ」母音이 先行하는 重母音以外의 母音으로 끝나는 名詞인 境遇, 끝 音節에 「ㅣ」를 添加한다.

- 11. 봉선화(鳳仙花); 13. 엠쇠(羊);
- 13. 당괴(長鼓); 15. 란되／난되(鸞鳥);
- 15. 종뛰(鍾樓); 151. 21. 쇠(票);
- 27. 부지(富者); 31. 혼식(婚事);
- 31. 팔자(八字); 35. 거문괴(거문고);
- 39. 춘마(駿馬); 99. 괴수(魁首);
- 117. 녹두(綠豆); 119. 황후(皇后);
- 131. 미뷔(妹夫); 163. 부뷔(蜉蝣);
- 163. 인휘(咽喉); 165. 화휘(火爐);
- 187. 공뷔(工夫); 197. 던쥐(田主);
- 203. 병뷔(兵符); 249. 동휘／동의(同俟);
- 253. 산휘(珊瑚); 377. 회수(湖水);
- 465. 셀새(泄鴻); 489. 티뷔／티의(態度);
- 497. 되수(潮水) 等.

(ㄹ) 名詞의 끝 音節이 本來부터 「-이」音節이거나, 또는 「ㅣ」母音이 包含되어 있거나, 또는 添加되고, 그 윗 音節에 「ㅣ」母音이 包含되어 있지 않는 境遇에는, 그 윗 音節은 그 末音節에 있는 「ㅣ」母音의 逆行同化를 받는 境遇도 있다.

101. 위이니⁵¹⁾(愚人); 377. 회수／호수(湖水)
 465. 셀새／설샤(池鷺); 497. 되수／도수(潮水)
 155. 우에니／웨이니⁵²⁾ (愚人); 237. 휘지(油紙)
 195. 별이／베리(星); 467. 되리호오(調理);
 671. 굴좌기(굴조개); 267. 야장이／애징이(대장장이);
 343. 카위(教諭)

(口) 「ㅣ」母音이 包含되어 있지 않는 一音節語에는 「이」音節을 添加하는 것이 普通이다.

577. 보이(縕); 667. 초이(酢);
 49. 우이(우:上); 197. 싸이(土);
 289. 파이／뜰파이(파:葱); 361. 코이(鼻);
 295. 요이／보료이(요:梅); 439. 터이(庭)⁵³⁾;
 그러나 때로는 二音節語에도 있다.
 9. 저자이(市); 11. 들보이(縕);
 439. 마다이(場);
 289. 둘파이(野葱); 295. 보료이(梅);

(日) 名詞의 末音節에 「ㅣ」母音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에는 「ㅣ」나, 「이」의 添加가 省略된다.

7. 나비(蝶); 11. 노리(歌);
 19. 바티(簾); 25. 형제(兄弟);
 35. 종의(紙); 41. 세피(다람쥐);
 49. 쌈찌(ձ찌); 105. 히(年, 歲);

51) P. 101은 露語로는 形容詞 “Глупный”로 說明되어 있고,

52) P. 155는 名詞 “Дуракъ”로 說明되어 있다. 「웨이니」의 「웨」字는 誤記인 듯.

53) 그러나 P. 323 계(縕), P. 151 괴(票)等이 보이는데 이는 原音節에 「ㅣ」母音이 包含되어 있었던 것이다. (표>표 | >표)

157. 너／연기(煙); 173. 빅(腹);
 175. 한서(鳥類); 247. 모귀(蚊);
 257. 린(鱗); 409. 바디／바지(下衣);
 437. 셰(垢); 423. 물기／모리(砂) 等.

(人) 名詞外의 副詞, 接續詞等에는 이러한 法則에서 除外되고, 本來의 語形, 發音 그대로이다.

名詞 203. 혹이(瘤)에 對해서 副詞 215. 혹(或); 또는 45. 문득; 53. 장차; 221. 떠양, 각각; 113. 자물(월선); 345. 비로소 等.

(○) 目的格「을, 를」⁵⁴⁾은 웃 名詞의 末音節母音이 「T」인 境遇에는 「T」로, 그 外의母音인 境遇에는 「一」로 發音된다.

a) 「T」母音인 境遇

13. 부푸텨라／부푸치오(打鼓);
 35. 방우루젓는다／방우루젓소(搖鈴);
 101. 수루곳소(酒蒸溜); 157. 수무수이오(呼吸);
 433. 추무밧소(吐唾); 589. 추무흘리오(流涎);
 207. 바두구둔다／바두구두오(圓碁);

b) 其他母音인 境遇

133. 약그다리오(湯藥); 145. 저즈쌰오(搾乳);
 153. 기르드리오／기르드린다(調練);
 193. 자시그션다／자시그비다(懷胎);
 393. 마스본다／마스보오(味);
 269. 모요그감는다／모요그감소(沐浴);
 329. 갑스닷تون다／갑스닷투오(價格決定);

54) 例外의 境遇도 있는데, P. 471의 「누누음쳐찌리오」, 또 P. 183의 「누누감소」에 對해서 亦是 P. 183의 「누느가맛소」, 또는 「궁무그막소」, 또 P. 261의 「무르드리오／무르드린다」(染色)等이 있다.

(c) 그러나 때로는 名詞末音節의 母音에 關係없이 모든 境遇에 「을, 를」을 使用한 경우도 있다.

- 33. 머리를각는다／머리를각소(剃髮);
- 129. 선무를호오／선무를한다(贈與);
- 35. 거문괴를탄다; 187. 공부를하오;
- 207. 배기률찬다; 285. 고기률잡는다;
- 311. 보슈률호오／원슈률감소／원슈률감는다;

(x) 「使役」으로 「-구-」를 使用한 경우.

- 83. 모모속구오／모모속군다⁵⁵⁾(待伏한다);
- 143. 팔구오⁵⁶⁾ (따라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
- 419. 심거살군다⁵⁷⁾ (심어 살린다);
- 441. 돌군다⁵⁸⁾ (方向을 變更한다);

(x) 命令形 終止語尾로 「-거라」(手下稱)를 많이 使用하고, 「平稱」이나 「手上稱」에는 「-쏘, -오, -고, -게」等을 使用하는 것이 보인다.

- 379. 돌거라／두투오⁵⁹⁾(圍繞);
- 515. 치른다／질거라／지르오⁶⁰⁾ (찌르다 : 刺);
- 517. 걸거라／거르오⁶¹⁾ (걸르다 : 遷過);
- 579. 니르오／닐거라⁶²⁾ (이르다 : 謂);
- 593. 묵거라／묵소⁶³⁾ (묶다 : 束)

55) 露語 “Выжидать”(期待된다), “Подстерегать”(몸을 埋伏하고 기대린다)로 說明되어 있다.

56) 露語 “Догонять”(追及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

57) 露語 “Пересаживать”(나무를 移植하다)

58) 露語 “Поворачивать”(다른 方向으로 돌리다)

59) 露語 “Окружать”(싸다, 包圍하다)

60) 露語 “Проткнуть”(刺通하다)

61) 露語 “Процеживать”(걸르다, 遷過하다)

62) 露語 “Сказать”, “Говорить”(말하다)

63) 露語 “Собираться”(묶다 束)

573. 안쏘／아즈오／안쑤괴／안축계(앉다：座)

(3) 語彙

語彙에 있어서는 大體的으로 咸鏡道方言의 特色이 濃厚할뿐만이 아니
라 支配的이라고도 할만하나, 여기에 多分히 平安道方言도 參考되고 있
는 것은 틀림없다.

이제 그 特色있는 語彙만을 끌라서 이를 1) 親族稱과 人稱, 2) 天文,
3) 地理, 4) 衣服, 5) 家屋, 6) 器具, 7) 身體, 8) 飲食, 9) 蔬植物, 10)
疎病, 11) 動物(獸, 禽, 魚, 昆) 12), 社會 風習, 13) 軍事, 14) 動詞,
15) 形容詞, 16) 副詞, 17) 外來語, 等의 順으로 간추려 記錄해 본다.

1) 親族稱 및 人稱

- 159. 크나비／큰아비／조부⁶⁴⁾(祖父);
- 9. 크나미⁶⁴⁾(祖母); 613. 하나비⁶⁵⁾(老人, 祖父);
- 613. 할미⁶⁶⁾(老婦人); 639. 아즈마님／아즈미(伯叔母);
- 161. 아즈바님／아자비／아즈바니(伯叔父);
- 397. 아부님／아비／부친이／직아비／터친이⁶⁷⁾(父);
- 547. 어벙이(兩親);

64) 成均館大學校國語國文學科 安東文化圈學術調查團의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1964~1966) IV. 方言篇 P. 142에 依하면 1. 「할아버지」를 「큰아빠」(큰아버지, 큰아부지) 12. 「할머니」를 「큰어머니」로 記錄하고 있다.
年前 筆者가 廉尚道方言調查를 爲한 踏查中에 狹川 海印寺境內에 들였을 때
修養하러 왔다는 惠山鎮出身 金大領(海軍, 本人은 이름까지는 밝히지 안했
다. 35歳가량)이라는 軍人이 惠山鎮의 方言을 말하는 中에 自己地方에서는
「祖父」를 「큰아버지」, 「祖母」를 「큰어머니」라고 한다고 말했으며, 그 地方에
는 女眞人家族들이 處處에 居住하고 있으며, 그 모습과 家屋, 衣服은 韓族
과 同一나 純只 山地에 隔離되어서 살고 있고, 交接을 거리는 것으로 区
分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

65) 露語 “Старикъ, Дедъ, Дедушка”로 說明되어서 「老人」의 一般稱이기도
하나, 「祖父」도 意味하는 듯 하다.

66) 露語 “Старуха”로 「老婦人」에 對한 一般稱.

67) 끝에 「터친이」는 書寫의 不分明으로 「터친아」로도 보이나, 「터친이」가 옳을
것 같아 이렇게 記錄한다.

573. 느위／맛느위／기치느위／동성느위(妹);
 3. 노더스⁶⁸⁾(老修道士, 主教, 大主教);
 3. 신소⁶⁹⁾(副官); 13. 되려니⁷⁰⁾(地主);
 25. 상승이(상동이); 113. 총지／든곱지⁷¹⁾／총장이(곱사동이);
 157. 쇠시／간나의⁷²⁾／녀시기／쇠기⁷³⁾(女兒, 麋女);
 169. 어비너⁷⁴⁾(女子, 婚人); 267. 야장이／애정이／보쉬⁷⁵⁾(冶匠);
 271. 쌍그리⁷⁶⁾(急使); 297. 경군살암이／경군이(경군, 水夫);
 543. 자인이⁷⁷⁾(工場職工); 643. 친구／동소리／버디(親舊);
 481. 차다군이／차디／소장이⁷⁸⁾(支配人, 所長);

2) 天文

51. 져나기⁷⁹⁾／나조이(夕); 359. 초할니(新月初一日);
 193. 헤기목소／달기목소⁸⁰⁾(日蝕: 月蝕);

68) 이는 露語로는 “Абатъ”(카톨릭修道院長, 主教, 大主教)로 되어 있으나 P. 307에 「티스」가 “Монах”로 「修道士」이고, 「티스」는 이 「道士」의 離傳이라고 믿고, 「노더스」는 「老修道士」와同一語라고 보았다.

69) 露語 “Адъютантъ”(副官)으로 說明되었으나, P. 469에 또 하나의 「신소」가 再出되고, “Посланник, Доверенный”로 說明되어 이 境遇는 「公使」, 또는 「代理人」을 意味한다. 前後者 다 「紳士」에서 露語源한 것인가?

70) 露語 “Баринъ”(地主貴族, 特權階級人)『도련님』>『려님』>『되려니』의 過程의 離轉인 것으로 보인다.

71) “든곱지”는 「등곱자」의 離轉이라고 믿어지며, “총지”等은 不明.

72) Kanna(咸南北), Kalla(咸南).

73) “쇠기”는 「새아기」의 離轉: sega(咸北).

74) emine(咸南北, 平南北各一部), emina(江原, 黃海 咸南北, 平南北各一部地方).

75) (黎)보려(訓蒙中, 17) : 犁犁 보(四聲解上, 28) 보수(챙기 만드는 사람) > 보쉬.

76) 露語 “курьер”는 「急使, 文書送達使」等을 意味하나, 「쌍그리」는 「雙가마」의 離轉?

77) 「匠人」의 離轉? 露語 “Ремесленник”.

78) 露語 “Правление, Управление”(管理, 統治)者을 意味하고, 또는 (官廳, 局署)等을 意味하나, 「소장이」로 보아 「所長」과 같은 말이라고 믿어진다.

79) tʃɔnak(黃海, 咸北, 平南, 平北各一部地方), tʃɔnok(咸北, 平北各一部), tʃinak(咸南北 各一部地方), nadzo(咸南北 全地方).

80) 「히기목소」의 「목소」는 「목소」의 講記이라고 믿어지나, 或은 「목소」라고 하 는 地方도 있으니, 「목소」로라고도 하는지는 不明. 小倉氏 [朝鮮의 方言]上 P. 3. P. 6.

3) 地理

317. 둔이／진이⁸¹⁾(鎮); 19. 163. 물역이⁸²⁾／물가이(水邊);
 299. 쓰리／쓸이⁸³⁾(淺瀨); 65. 물겨리／물멀기／멀기⁸⁴⁾(波);
 35. 고마기⁸⁵⁾(小山, 小丘); 411. 쓸이／버리／두루이⁸⁶⁾(牧場);
 101. 패흘기／패 할기(粘土); 39. 물구비(入溝);
 243. 구렁무리／운무리(井); 511 구렁이(斷崖, 深淵);
 525. 문궤기／툇글이／문쥐／툇그리(塵);
 527. 언더기／언덕이⁸⁷⁾(平地); 683. 두덩이⁸⁸⁾(丘);

4) 衣服

331. 누더기⁸⁹⁾(外套, 만도); 375. 오시／옷트／의보기(衣服);
 43. 소음이／면즈／소씨(綿); 243. 삼승이／삼송이(綿布);
 433. 유삼이(蠟雨衣); 433. 달령이(속옷);
 433. 가오시／갓쳐구리(皮衣);
 15. 돌오기⁹⁰⁾(短, 半長皮靴); 561. 슈여지／슈예자⁹¹⁾(長靴);
 715. 혼소리／바느자리(縫衣);

5) 家屋

5. 샤랑이／서방이(倉庫); 185. 겹창이(커一틴);

- 81) 露語 “Местечко (Слобода)”(大村落, 自由農民의 大村)으로 說明되어 있어 自衛施設이 있는 村落인 [鎮]字의 音으로 보인다.
 82) mulljek(咸南北 全地方, 平南北 大部分地方, 黃海一部地方)
 83) *swl(咸南北 大部分地方)
 84) malgi(咸南北 全地方), malmi(咸南 一部地方), P. 515에 [파워／멀기]로 再出.
 85) 露語 “Бугор”(小山, 堆積)
 86) P. 457에 [풀이／버리／두루이]로 再出, 그러나 이 境遇는 露語 “Поле” [野]로 說明되어 있다.
 87) 露語 “Равнина”(平地, 平原, 平野)
 88) 露語 “Холм”(丘, 岗, 小山)
 89) [누더기오／누더긴다](外套를 입는다)
 90) 露語 “Башмак”(가죽으로 만든 短, 半長靴)
 91) 露語 “Сапоги”(長靴)

29. 문정이／문성이(門眞장); 69. 서립피⁹²⁾(門入口);

327. 열의／어뢰(처마, 庇); 623. 치서기⁹³⁾(階段);

663. 구비기／구서기(房子석);

723. 층터／터터(建物의 層階);

6) 器具

7. 치(尺); 11. 터상이(箸); 13. 부피(鼓);

15. 폭기⁹⁴⁾(鞆, 旅行鞆);

37. 565. 비비／비비／비비송고지⁹⁵⁾(錐);

47. 베리／그물베리⁹⁶⁾(漁網바줄); 49. 노리／놀이(橈);

155. 터려니⁹⁷⁾(대리미); 121. 새슈뢰(쇠스랑, 罗);

155. 피례(피리, 笛); 149. 서답도리⁹⁸⁾(洗濯石);

191. 광창위⁹⁹⁾(삽가래); 325. 죽방울이／죽방우리(공, 珠);

227. 착기¹⁰⁰⁾(殳, 罂); 229. 슈본이¹⁰¹⁾(名械);

561. 발귀¹⁰²⁾(설매 : 穢); 561. 온枢／계옹枢(魚網);

92) 露語 “Ворота” (Крестьянский)로 [農家の 入口門]이니까 “사립문”程度인 것 같다.

93) 露語 “Ступен”(段階, 사다리의 段)等을 意味한다.

94) 露語 “Баульчик”(楸은 木製, 皮製 旅行用가방)이라고 說明하고, 다시 註를 달아서 “Плетеный Ящик”(編製箱子)로 說明하고 있으니, 或은 [고리상자]를 말한듯?

95) 이의 動詞形으로 P. 565에 [듬는다／비비질한다／듬는다]로 記錄되어 있다.

96) Pjəri(바줄)(咸南北 大部分地方).

97) terjən(咸北一部), terjəni(咸北, 會寧)

98) sədap(咸南)(全南 大部分, 廣南 全北 各一部地方).

99) kwaptʃáŋi(咸南一部, 咸北大部分), kwaptʃái(咸南北 各一部地方), kwaptʃáu(咸南一部地方), kwaptʃiu(咸北一部地方).

100) 露語 “Капкан” (Ловушка)(殳, 합정, 罂) p. 285에 [착기](ловушка)로 再出.

101) 註에 “Очень подробная”(大端히 仔細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102) 露語 “Сани”(설매); palgu(江原, 黃海, 咸南北, 平南北 各一部地方), palgwi(或有北 大部子也方), pa lg i(咸南北 各一部地方).

583. 헝그미／허금이(Violin)¹⁰³⁾; 605. 가다기(챙기)：鋤；
 651. 나가기¹⁰⁴⁾(喇叭)；675. 윤두]／윤도／윤되¹⁰⁵⁾(인두)；

7) 身體

15. 선다리／선부초리(大腿, 股); 169. 양이(胃)；
 21. 종아리／을가리(脛); 275. 이／애(腸)；
 523. 빙보기／빙부기(배꼽)：臍；525. 거의(顏面班點)；
 557. 얼것소／마누리(痘痕)；573. 냉통이／냉통이(心臟)；

8) 飲食

472. 티셔기／티시기(엿)：飴；17. 민게¹⁰⁶⁾(맹탕, 맛이 없는 것)；
 537. 청장이¹⁰⁷⁾／슈장이／지령이／간장이(醬)；
 633. 담비／단바귀／남초(담배, 煙草)；

9) 穀植物

117. 팽치¹⁰⁸⁾／쇼두(小豆)；225. 389. 쌀이／자리(갈대, 糜, 草)；
 451. 헤개부리¹⁰⁹⁾(해바라기)；3. 다크피¹¹⁰⁾(아카시야)；
 5. 베스과(수박)；513. 쌀이／싸리(껍질벗긴 穀物總稱)；
 545. 닙쓰리／닙쌀／빔미／비미(白米)；
 215. 니름낭기／니름나모(느릅나무, 榆)；

10) 瘦病

341. 칸지리／헝부리(感氣)；231. 천마니／깃초미(咳)；

103) 露語 “Скрилка”

104) 露語 “Труба Музыкальная”, (音樂管 喇叭).

105) ju:ndi(慶南北 各一部地方, 咸南, 江原 各一部地方, 全南北 各一部地方), ju:ndu(慶南北 各一部地方).

106) 露語 “Безвкусный”(맛이 없는, 無趣味한).

107) t'ɔpdziap(平北, 江界)——山蓼採取業者의 隱語, 小倉氏 [朝鮮語方言研究] 上 P. 164参照

108) P'att'i'i(咸北, 慶源, 慶興), pətt'i'i(咸北, 鏡城).

109) hegeburi(咸北, 會寧, 慶興)

110) 露語 “Акация”(나무 아카시야. 名稱임에는 틀림없으나, [다辱皮]語源은 不明.

509. 천일창이(癩病);

- 11) 動物(獸, 禽, 魚, 昆)
 39. 둉구리(雄牛); 41. 셰피¹¹¹⁾(다람쥐);
 101. 비느리(虱卵); 115. 주랑이(動物의 목);
 123. 모요기¹¹²⁾/갈기(말갈기); 161. 더구리¹¹³⁾(딱따구리);
 259. 고내/고내이/과¹¹⁴⁾(猫); 163. 두터비¹¹⁵⁾(두꺼비);
 293. 기구리/머그라기/머그락지¹¹⁶⁾(개구리);
 289. 청총미¹¹⁷⁾/츄미(青馬); 299. 무랑미/무랑이¹¹⁸⁾(去勢馬);
 171. 미야지/미아지(망아지); 667. 굴게/구례(馬勒);
 313. 박기 아미/박씨 미(개미:蠍); 573. 골방이¹¹⁹⁾(달팽이);
 576. 치디벌기/갓똥벌기¹²⁰⁾(蟹); 637. 쇠야지/쇄지(송아지);
 693. 마호미/마아미¹²¹⁾(馬銜);

12) 社會 風習

35. 부사리¹²²⁾(佛佗); 119. 숫마기¹²³⁾(宿泊所);

111) 露語“Белка”(다람쥐).

112) moregi(咸南北), moregi(咸南北), moregi(咸南一部地方).

113) kamak-t'sogari(咸北, 茂山) kamak-t'soguri(咸北, 會寧, 鏡城).

114) koje(咸南北 各一部地方), kogje(咸南北 各一部地方), kwapi(平北一部地方).

115) tut'ebi(咸北全地方).

116) mogurak'tsi(咸北一部), meguragi(咸北一部地方), moguri(咸南一部), molgurak'tsi(咸北一部地方)

117) t's'ort'órmal(濟州).

118) 露語 “Мерин”(去勢馬).

119) 露語 “Раковина Спиральная”, kolbegi(慶北, 江原, 咸南各一部, 咸北全地方).

120) 露語 “Светляк”, ket'tsi-polgi(咸南一部), ?ket'tsi-polgi(咸南一部), ?ket'tsi-pori(咸南一部).

121) 露語 “Удила”.

122) 露語 “Буда”, 그러나 本來의 露語는 “Будда”이다. 그리고 이 [부사, 부사리]는 [菩薩]의 音譯이 아닌가 생각된다.

123) 露語 “Гостинница”(Постоялъни)(旅館——시골旅人宿) P. 561에 [탐마기]/순마기로 나오고, 이 境遇에는 “Сарай угольный”로 說明되어 있는데, [숫마기]나 [순마기]는 다 함께 [炭幕]에서 語源한 것인가?

227. 져리／절이／찰이／결이(절 : 寺);
 371. 샤¹²⁴⁾(團體, 會); 333. 수청이／수령이¹²⁵⁾(妾);
 373. 푸슈기／풍쇼기(風習); 611. 차미(郵便驛)¹²⁶⁾;
 711. 무당이／수승이／샤당이¹²⁷⁾(巫);
 87. 슈리리／적지리(刺繡); 479. 구시리／세／공세(稅貢);
 145. 증츠미／증견이¹²⁸⁾(證言); 165. 음시기／음쳐니(給料);
 237. 자직률한다¹²⁹⁾(押印한다); 189. 문정이／문정하오¹³⁰⁾(質問);
 210. 그신다／그시오¹³¹⁾(否定한다); 367. 그르기 허오¹³²⁾(贓言한다);
 393. 봉토／다임이／다더미(다짐, 證言, 供述);
 395. 가타기¹³³⁾(口實, 말의 回避); 431. 이림조¹³⁴⁾(漢字);
 135. 격세／격서¹³⁵⁾(至急便, 電報); 501. 홍니¹³⁶⁾(興利);
 557. 차례／질버리(次例); 693. 시티기(市場價);

13) 軍事

63. 호바니¹³⁷⁾(軍士); 5. 부위리¹³⁸⁾(戟, 兵器);
 5. 극계¹³⁹⁾(兵士의 裝備); 5. 불미／던장이¹⁴⁰⁾(불모 : 人質);

124) 露語 “Община”, 그러나 行政區域 [面]을 [샤]라고 稱한 것 같다.

125) [守廳]에서 語源한 것인듯.

126) 露語 “Станция Почтовая”, [站]에서 語源한 것.

127) [무당이／스승이]는 [女巫](Шаманка), [사당이]는 [男巫] “Шаман”.

128) 露語 “Доказательство”(證據, 證言).

129) 露語 “Клеимить”

130) 露語 “Запрос, Запросить”: P. 609에 [문정이／문정하오]로 再出.

131) 露語 “Избегать прямого ответа” (Отрицать).

132) 露語 “Обмануть”

133) 露語 “Отговорка” P. 485에 [가다기]로 再出.

134) 露語 “Письмена Китайския”.

135) 露語 “Депеша”

136) 露語 “Приобретение”(獲得物, 購買品).

137) [虎班]에서 語源한듯?

138) [斧銳]에서 語源한듯? 露語 “Амуниция”.

139) 露語 “Амуниция”.

140) 露語 “Аманат”(불모)

97. 술너군이¹⁴¹⁾(駐屯軍); 403. 군관이(軍官);
 201. 도기／독독이¹⁴²⁾(軍旗); 551. 동총이／총이／조총이¹⁴³⁾(小統);
 619. 디니¹⁴⁴⁾(隊列);

14) 動詞

29. 쓰오¹⁴⁵⁾(擲로반다); 33. 더닌다／더디오／더더라(投);
 31. 죄호오／죄희라¹⁴⁶⁾(받다, 受); 101. 수루곳소(술을 蒸溜한다);
 135. 엔다／奚오(잡아당기다, 引); 399. 안는다／앗소(奪);
 621. 각소／갈기오(대패질하다); 671. 저인다／저이오(威脅한다);
 271. 너인다／년다(물다, 嘴); 715. 혼다／호오(바느질한다);

15) 形容詞

27. 마리다스호오(말이 많다);
 93. 소무라온¹⁴⁷⁾(사나운, 惡); 279. 가기염타¹⁴⁸⁾(가볍다 輕);
 353. 오활하다¹⁴⁹⁾(漠然하다); 449. 갓호오／갓하다(같다, 同);
 517. 서늘호오／선드검소(서늘하다, 凉);
 565. 팍호다¹⁵⁰⁾(괴陥스럽다);

16) 副詞

45. 두루／서져기(到處에); 47. 아계이¹⁵¹⁾(寬大히);

141) 『戊來軍』?, P. 471의 『슈스리』, P. 617의 『경첨이／경명／술너』와 同.

142) 『獨』

143) 『鳥統』 『동총이』는 訛轉된 것임

144) 露語 “Строй (O boyck) (軍隊의 構成). 『鎮』에서 語源?

145) 露語 “Бодать”

146) 露語 “Братъ, Принимать”.

147) samurap-ta(慶北一部地方).

148) Kagep-ta(咸南大部分, 咸北一部), Kagup-ta(咸南一部), Kagap-ta(咸南, 平北 各一部), Kgap-ta(慶南北, 咸南北 各一部).

149) 露語 “Неопределенный”.

150) 露語 “Своенравный”.

151) 露語 “Великодушный”.

75. 다／흘싸／모두¹⁵²⁾(모두); 147. 벅벅이¹⁵³⁾(반드시);
 355. 방당이／방당¹⁵⁴⁾(適當한 時機가 아닌);
 351. 천천니／나아랑¹⁵⁵⁾(천천히); 363. 어리이／야라이¹⁵⁶⁾(若干);
 451. 몰쉬／자분참／여러번¹⁵⁷⁾(連續해서);
 475. 버금이／버금에¹⁵⁸⁾(다음에);

17) 外來語

137. 지리리(나무, 露語, Дерево);
 139. 하르가리(地積單位, 英語, hectare);
 15. 돌오기¹⁵⁹⁾(短, 半長靴 tunguse語源?);
 561. 수여지／수예자¹⁶⁰⁾(長靴, 漢語「靴子」의 詛轉?);
 561. 팔귀(설매, 橋 Tunguse語 para, fara 語源?);

3.

正祖朝(1777~1800)때에 洪良浩의 著인 「北塞記略」中 「孔州風土記」에는 豆滿江河口에서 멀지 않는 곳에 位置하는 廣興地方¹⁶¹⁾의 方言이 三十餘語彙가 記載되어 있어 우리의 關心을 끌고 있던 바이었는데, 푸겔로氏가 「露韓辭典」에 記載한 韓國語가 顯著하게 어느 特定한 地方의 方言과 關聯이 있는 것이고¹⁶²⁾, 특히 露領沿海州地方에 隣接되어 있는咸

152) P. 595에 再出

153) 露語 “Должно быть”(반드시…해야된다). 벅벅이(一定)——譯語補 52.

154) 露語 “Несвоевременно”.

155) naraŋ(咸北大部), namnami(平北一部), namnam(咸南一部).

156) 露語 “Несколько”.

157) 露語 “Подряд, Сразу”. p. 611에 [자분참]으로 再出.

158) 露語 “Потом, Затем”; 베구매各別히며사(其次別申)——永嘉集上, 117.

159) 北塞記略 [多路岐], 縱輶譯語, 鞋——察魯黑..

160) 快靴子 수이자——譯語類解.

161) [廣興古孔州之地]——孔州風土記.

162) 序 P. 3에 [大體的으로 貧困하고 收獲없는 韓國의 北部二道의 住民들은…]에서 [北部二道]는 咸鏡道와 平安道가 該當된 것이다.

北地方 方言과 關係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孔州風土記」에 記錄된 慶興方言(距今 200年~150年前)과 무절로氏의 露韓辭典(距今 100年前)에 나오는 語彙가 어느 程度一致하는가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¹⁶³⁾

尤先「孔州風土記」에서 慶興方言 語彙에 關한 記錄이 있는 곳만 抄錄해 보인다.

「孔州極北不毛之地也。三者無花。八月見雪。衣無續絮。食惟黍粟。而地踔遠人
民希。瘠土無積聚。大與中國之上郡北地。俗相類。久爲女眞野人之所據。多有北
鄙之風。其利樺皮麻布紹納之皮。面謂之社。民謂之鄉徒。鄉族謂之品官。自南徙
者謂之入居。巫覡謂之師。里中公事謂之風俗。私奴謂之土奴。…中略…。邑軍官謂
之衛軍官。以品官子弟爲之。額多寡視邑大小。每二人入番。馬兵謂之別武士。…中
略…。凡年十三以上者皆入籍。謂之城丁軍。…中略…。四門各置將領。謂之雉總。^{11.}
…中略…。三月冰解則撤其半。移設於海防。謂之海望。…中略…。兒出腹。即納水
盆以洗血。謂之去胎熱。^{12.}…中略…。門曰烏喇。山峰曰嶂。高阜曰德。邊淮曰城。墻
壁曰築。淺灘曰膝。貓曰虎樣。貢牛曰輪道里。鳥網曰彈。狹戶曰生契。南曰前北
曰後。^{13.}…中略…。小車名曰跋高。^{14.}…中略…。犧用牛革長沒脛。名曰多路犧。^{15.}…中略…
^{16.}海棠實曰悅口。芡仁曰馬房。棣實曰栗。^{17.}…中略…。土不產楮。紙用耳麥稈擣成。名
曰黃麻紙。^{18.}…中略…。公私文書皆用之。土不產蠟。蠟用麻幹蓬莖。^{19.}塗以櫟蠟以燃火。名曰燈。^{20.}
…中略…。夏有魚似秀魚而小。俗名夜來。^{21.}

(以上에서 漢字語라고 생각되는 語彙가 많을 뿐 아니라, 이 以外에도 漢字語라고 믿어지는 語彙가 五, 六語 더 散見되는 것이 보이지만 省略했다.)

1) 「社」——「面謂之社」의 「面」은 行政區域上의 「面」을 指稱하는 것으

163) 小倉進平氏는 著書 「朝鮮方言의 研究」後篇 研究篇에서 「北塞記略」과 이 「露韓辭典」을 引用, 그 나름대로의 意見을 陳述하고 있다. 同書 PP. 277~280. PP. 353~359. PP. 398~406. PP. 535~539. 等

로 보아서 틀림없을 것이다.¹⁶⁴⁾

「東國輿地勝覽」¹⁶⁵⁾에는 咸鏡道 「永興都護府」에 屬하는 「耀德鎮」을 「縣을 廢하고 社로 改稱했다」는 記錄이 있고, 또 文川郡條에도 「龍津廢縣…今稱明孝社」, 또 德源都護府의 「古跡」條에도

「鎮溟廢縣…今稱鎮溟社.」

「龍津廢縣…稱龍城社. 割縣北龜山社. 明孝社以屬文川郡」.

「湧珠里…改名赤田社」.

等의 記錄이 보이고, 「孔州風土記」내에도 「男丁別有籍. 無役之人每月三聚點于本社, 生死告官移來去告官, 越境往來者告官受牒」의 記錄이 보인다.

따라서 咸鏡道地方에서는 일찌기부터 行政區域의 名稱으로 「社」를 使用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չ로氏는 全書 370~371페이지에 「共同體, 地方自治團體, 會, 協會」(露語 Община)에 「샤」(ся, sja, sha)로 記錄했다.

2) 「鄉徒」——「高麗古都徵」四, 風俗條에 「國俗結契燒香名曰香徒或作鄉徒相與輪設宴會. 男女少長序坐共歡謂之香徒宴」이 라 記錄해서 古來로 우리民族 사이에서 一種의 契員의 名稱으로 使用되었었고, 後代에 와서 哭事에 있어서 契員들이 哭輿를 매고 가는 風習이 생긴 後부터는 相互間에 「상두꾼」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香徒, 鄉徒」가 「상두」로訛轉됨과 同時에 「喪徒」와도 共通되게 되어서 「鄉徒→契員→喪徒」로 一致를 보게 된듯 하다.¹⁶⁶⁾

164) 이 「社」는 또는 「組合」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는 「一群의 民戶」를 指稱한다. 「社 周禮 二十五家爲社」——說文.

165) 同 卷四十八 永興都護府 「古跡」 耀德鎮條 「耀德鎮 在府西一百二十里 本顯德鎮. 高麗顯宗十四年築城. 恭愍王改爲縣○已上. 今廢爲社. 社猶盲里也. 本道人凡稱里皆爲社」.

166) 香徒(향도)——喪輿軍과 같음. 喪輿軍(상여군)(軸丁, 香徒, 상두八군, 鄭語

「孔州風土記」에 「民謂之鄉徒」라고 한 것은 北塞地方에 移住하게 된
住民들이 外敵에 對해서 굳게 團結되어 있기 때문에 相互間에 「鄉徒」라
고 稱名했던 것 같다.

푸질로氏의 「露韓辭典」에는 보이지 않는다.

3) 「品官」——「品階를 가진 官員의 總稱」인데, 「鄉族謂之」라 했으니,
그 鄉族家門全體를 指稱했던 것 같다. 푸질도氏의 「辭典」에는 보이지
않는다.

4) 「入居」——「李朝初에 百姓을 咸鏡道地方으로 移住시키는 事務를
管理하는 官衙」를 「入居廳」이라고 했다고 하며, (朝鮮語辭典), 本辭典
에는 記錄없음.

5) 「師」——「巫覡謂之」이고, 푸질로氏는 p.711에 「무당이／스승이／
사당이」로 記錄하고 있는데, 「스승이」¹⁶⁷⁾가 이에 該當하는듯 하다.

6) 「風俗」——「里中公事謂之」, p.373에 「무슈기／풍쇼기」.

7) 「土奴」——「私奴謂之」, 本來는 「土着人の 奴」¹⁶⁸⁾를 意味한다.

8) 「衛軍官」——「邑軍官謂之」「防衛軍官」¹⁶⁹⁾을 意味함. 「없음」.

9) 「別武士」——「馬兵謂之」, 「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의 下士의」¹⁷⁰⁾.
「없음」.

10) 「城丁軍」——「凡年十三以上者皆入籍 謂之」. 「없음」.

11) 「雉總」——「四門各置將領 謂之」. 「없음」.

12) 「海望」——「三月氷解則撤其半 移設於海防 謂之」. 「없음」.

13) 「去胎熱」——「兒出腹, 即納水盆以洗血, 謂之」. 「없음」.

夷徒軍)——朝鮮語辭典.

167) Ssang(咸南一湍川, 咸北, 大部分, 平北一義州), Ssangapi(咸北一明川), Ssanggi
(黃海一黃州).

168) 朝鮮語辭典.

169) 朝鮮語辭典.

170) 朝鮮語辭典.

14) 「門曰烏喇」¹⁷¹⁾

오래문——門子(訓蒙中 7: 門字註)

오래문——門(石千, 27)

曾見嶺南印本千字文諺解以烏羅釋門字，全州兒童指客舍大門謂之烏羅也——顧齊遺稿 25: 23. 「敘音」。

15) 「山峰曰嶂」¹⁷²⁾

上曰 頂——雞林類事。「敘音」。

16) 「高阜曰德」

「北人方言稱龍坂爲德」¹⁷³⁾

언덕 감(墈)——訓蒙上, 4.

물언덕 안(岸)——類合上, 5.

p. 527. 「언더기／언덕이」(平地);

p. 683. 「두덩이」(丘, 小山);

17) 「邊涯曰域」

p. 19/163. 「문역 이」¹⁷⁴⁾ / 「물가이」(水邊);

18) 「壁曰築」¹⁷⁵⁾ 「敘音」。

19) 「淺灘曰膝」

p. 299. 「쓰리／쓰이」¹⁷⁶⁾

171) Ore(이웃, 이웃村, 近隣)(黃海一部, 咸南北 大部分, 平北一部分), olle(집으로 通하는 小路)(濟州全部)。

172) 嶠(매부리둘밀장 山峰如屏障)이니 그대로 山峰을 「頂」 혹은 「嶂」이라고 한듯。

173) 咸鏡道方言에서는 一般的으로 높은 곳을 “tək”이라고 하고, 선반 또는 平地보다 높은 곳에 앉게 해놓은 곳等도 “tək”이라고 한다(咸興). 따라서 高阜도勿論 “tək”이다.

174) mulljək(黃海, 咸南北, 平北, 各大部分地方); muljəgari(京畿, 咸南 各一部地方); mul-jəksugari(黃海一部); mul-jəkk'ari(咸南一部); mul-jəlsugari(平南一部).

175) tʃ'uk-tam(咸北大部分); tʃ'ul-tam(咸南一部分); tuk-tam(平北一部分); 壁을一般的으로 둘로 싸아울리기 때문인듯.

176) ?swl(咸南一部分, 咸北大部分).

20) 「貓曰虎樣」

p. 259 「고내／고내이／과¹⁷⁷⁾」

21) 「貢牛曰輪道里」¹⁷⁸⁾. 「歛음」.22) 「鳥網曰彈」¹⁷⁹⁾. 「歛음」.

23) 「狹戶曰生契」. 「歛음」.

狹戶는 「원채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딴살림을 하게 된 집채」——(朝鮮語辭典)

따라서 「생가」(小家)에서 由來한듯 함.

24, 25) 「南曰前, 北曰後」¹⁸⁰⁾.

p. 329. 「두이／두허」(後)

얇남(南)——訓蒙中 4.

얇전(前)——訓訓下 34.

뒤북(北)——〃 中 4.

뒤후()——〃 34.

26) 「小車名曰跋高」

p. 561. 「발구」¹⁸¹⁾ (轂)

27) 「襪用牛革長沒脛名曰多路岐」

p. 15 「돌오기」¹⁸²⁾

28) 「海棠實曰悅口」¹⁸³⁾ 「歛음」

177) kone(咸北一會寧); konegi(咸南北, 平北, 江原, 濟州 各一部分地方); konje(咸北大部分); ko-e(咸南一部); kojag(咸南一部); koje(咸南北 各一部地方).

178) junduri(咸南北 各一部分); jundul(咸南大部分); jundu-sφ(咸南北 各一部分); indu(咸南一部分); pene-sφ(咸南一部分).

179) t'an(咸南北 各一部分); t'ap(咸南一部分); t'an-k'o(咸北一部分).

180) ap(平南北 咸南北 各大部分) twi(平南北 咸南北 各大部分).

181) palgu(平南北 大部分, 咸南, 黃海, 江原各一部分地方); palgwi(咸南北, 各大部分地方); palgi(咸南北 各一部分地方).

182) torogi(咸南北各大部分); toregi(咸南北各一部分); torok-sin(咸北一部); torogi(咸北大部分).

183) P. 251에 「열기／마즈／삼이」가 있으나, 이는 「麻」의 「 열」인듯함.

29) 「炎仁曰馬房」

p. 385 「말방이」¹⁸⁴⁾

30) 「橡實曰栗」。「叢音」。

31, 32) 省略

33) 「夏有魚似秀魚而小，俗名夜來」¹⁸⁵⁾。「叢音」。

以上과 같이 慶興方言과도 一致點이 許多한 것을 보면 咸北方言中에
서도 그 國鏡地方의 方言과 關聯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끝

184) malbebi(咸南北 大部分地方); malbe(咸南一部).

185) jari(咸南北各一部); jarui(咸北一部); jare(平北一部).